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Morning Brief

하루에 하나



2026.9.17

SEPTEMBER

S	M	T	W	T	F	S
		1	2	3	4	5
6	5	8	9	10	11	12
13	12	15	16	17	18	19
20	19	22	23	24	25	26
27	26	29	30			

원/달러 환율

1,366.70원 (+3.00원)

KOSPI

6,717.97 (+90.71, +1.37%)

KOSDAQ

815.98(+3.57, +0.44%)

국고채 10년 금리

4.547(-0.053%p)

동 자료는 오늘 발간된 자료의
요약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각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hanafn.com



Special Report

미국 AI 인프라

Time to power: 데이터센터 병목과 세 가지 해법 [강재구, 김시현]

Global Asset Strategy

자산배분의 창(窓)

AI 회사채 시대, 늘어나는 장기 듀레이션 공급 [이영주]

기업분석

포스코인터내셔널

북미 가스전 인수로 LNG 밸류체인 완성 [유재선]

네오팜

더마 명가의 자부심, 제로이드 [박중대]

파인애플

아임 파인, 땡큐 폴더블: 국내 호조에 북미 가세 [권태우]

산업분석

디지털자산/인터넷

클래리티 법안 절차 투표 부결, 향후 전망 [이준호]

운송

환율과 운송 [안도현]

단기투자유망종목

HD현대중공업, 삼성SDI, SK이노베이션, 한화생명, 오리온, DL이앤씨, 대한해운, 피에스케이홀딩스,
RFHIC, 인텔리안테크

하나증권

2026년 9월 17일 | 산업분석_Industry In-depth

Overweight

Top Picks 및 관심종목

* CP는 2026년 9월 15일

이턴코퍼레이션 (ETN.US)

시장 TP 392.90 USD | CP 490.70 USD

블룸에너지 (BE.US)

시장 TP 259.30 USD | CP 289.90 USD

EROCK (EROE.US)

시장 TP 22.50 USD | CP 11.04 USD

Galaxy Digital (GLXY.US)

시장 TP 40.62 USD | CP 22.29 USD

Cipher Digital (CIFR.US)

시장 TP 32.17 USD | CP 15.09 USD

미국 AI 인프라

Time to power: 데이터센터 병목과 세 가지 해법 (PMDC, 온사이트, Powered shell)

AI 데이터센터 전력 문제의 핵심은 공급량보다 사용 가능한 시점

AI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전력 수요가 공급능력보다 빠르게 늘고 있다. ERCOT의 대규모 부하 전력연계 신청은 2024년 12월 약 63GW에서 2026년 8월 474GW 이상으로 약 20개월 만에 7배 이상 증가했다. 2026년 3월 전체 410.6GW 가운데 데이터센터 관련 신청은 355.8GW로 87.6%를 차지했지만, 신청 증가가 실제 전력 사용으로 같은 속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2025년 6월부터 2026년 3월까지 2028년 목표 대형부하 신청은 102% 증가했으나, 계통 검토를 마친 이후 단계의 전력은 42% 증가하는 데 그쳤다. AI 데이터센터의 문제는 미국에 전기가 없다는 것보다 필요한 위치에서 필요한 시점에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전력망·장비·인력·인허가, 가장 늦는 병목이 데이터센터 가동일을 결정

전력 확보 시간은 계통연결만의 문제가 아니다. 수백MW의 신규 부하를 수용하기 위해 송전망과 변전소를 검토해야 하고, 계통을 우회해 자체 발전을 선택해도 가스터빈·가스엔진·변압기 등 발전·전력기기의 공급 병목을 다시 만난다. 현장에서는 전기기사와 정비공 등 숙련 인력이 부족하고, 전력과 장비가 준비돼도 지역사회 반대와 인허가를 해결하지 못하면 가동이 늦어진다. 데이터센터의 실제 상업가동일은 전력망, 장비, 시공, 인허가 가운데 가장 늦게 해결되는 병목에 맞춰진다.

시간을 줄이는 세 가지 방법: 모듈화·현장발전·이미 확보한 전력

Time-to-Power가 길어질수록 데이터센터 사업자는 기다리는 대신 시간을 사게 된다. 첫 번째는 데이터센터를 현장에서 처음부터 건설하지 않고 공장에서 사전 제작해 조립하는 PMDC다. Vertiv가 제시한 PMDC의 배포기간은 10~18개월로 전통 데이터센터의 최대 6년보다 짧다. 두 번째는 계통연결을 기다리지 않고 부지에서 직접 전력을 생산하는 현장발전이다. 세 번째는 신규 전력 확보 대신 가상자산 채굴업체 등이 이미 확보한 계통연결과 변전소·부지를 AI 데이터센터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데이터센터 경쟁력이 얼마나 많은 전력을 신청했는가에서 얼마나 빨리 실제 사용할 수 있는가로 이동하고 있다.

Time-to-Power 수혜주

전력 확보 시간을 단축하거나 확보한 전력의 가치가 높아지는 기업에 주목한다. 모듈형 데이터센터의 ETN, 빠른 현장발전의 BE·EROE, 확보 전력을 AI 데이터센터로 전환하는 GLXY·CIFR를 추천·관심종목으로 제시한다.

Analyst 강재규 jaekoo.kang@hanafn.com
Analyst 김시현 sihyun.kim@hanafn.com
RA 이재은 jaeeunlee@hanafn.com

2026년 9월 17일 | Global Asset Research

Asset Allocation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자산배분의 창(窓)

AI 회사채 시대, 늘어나는 장기 듀레이션 공급

국채에서 민간으로 확산되는 장기 듀레이션 공급

美 10년 국채금리는 연초 저점 이래 현재까지 100bp 넘게 상승했다 (2/27 3.94%, 9/15 4.97%, 재무부 제공 Par Yield 기준). 고유가 부담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한 가운데, 견조한 경기를 반영해 Fed 금리경로에 대한 기대가 상향되었으며, 국채·회사채 공급 확대는 텀 프리미엄 (Term Premium)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명목 국채 수익률 $\approx$ 기대 인플레이션 + 기대 실질 단기금리 평균 + 텀 프리미엄 (DKW Model)

최근에는 텀 프리미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채권 공급의 성격도 달라지고 있다. 그동안 장기 듀레이션 공급 증가는 미 재정적자 확대에 따른 국채 발행이 중심이었지만, AI 투자 확대와 함께 대형 테크기업의 외부자금 조달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AI 관련 우량 회사채 발행이 장기 만기에 집중되면서 민간에서도 새로운 장기 듀레이션 공급이 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국채에 이어 민간까지 가세하고 있는 장기 듀레이션 공급의 변화와 이것이 텀 프리미엄 및 장기금리에 미칠 영향을 점검해 보려 한다.

중요한 것은 국채와 회사채의 공급 주체는 다르지만, 장기 듀레이션을 받아들이는 투자자 기반은 일부 겹친다는 점이다. 국채와 우량 회사채는 안전성과 유동성 측면에서 차이가 있지만, 보험사·연기금 등 장기 듀레이션 투자자는 각각의 수익률과 위험을 비교해 두 시장에 자금을 배분한다.

예를 들어 초우량 등급의 30년 회사채와 30년 국채는 만기와 듀레이션이 유사하기 때문에 투자자는 국채 수익률과 회사채가 제공하는 추가 credit spread를 함께 비교한다. 국채금리가 상승하면 회사채도 더 높은 금리로 발행해야 하고, 반대로 대규모 회사채 공급으로 회사채 수익률이 높아지면 국채의 상대적인 투자매력도 낮아질 수 있다. 국채와 회사채 공급이 동시에 늘어나는 환경에서는 두 시장의 요구수익률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장기금리 전반에 상승 압력을 더할 수 있다.

AI 회사채, 발행액보다 커지는 금리위험

주요 하이퍼스케일러 및 AI 관련 기업 20개의 회사채 발행액은 2023~24년 연평균 약 \$53bn이었으나, 2025년 \$158bn, 2026년에는 8월까지 \$257bn으로 증가했다.

Dallas Fed는 2026년 AI 관련 IG 회사채 발행액이 약 \$300bn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양한 만기와 금리 민감도를 반영해 듀레이션 공급 (duration supply)을 10년 국채 기준으로 환산하면 최대 \$360bn의 *10-year equivalent로 계산된다. 즉, AI 관련 회사채가 공급하는 금리위험이 10년 국채 약 \$360bn을 발행했을 때와 유사하다는 의미이며, 이는 미 재무부가 공급하는 전체 duration의 약 1/8에 해당한다.

*10-year equivalent는 서로 다른 만기의 채권을 금리변화에 대한 민감도 (duration)를 반영해 동일한 금리위험을 갖는 10년 국채 발행액으로 환산한 값을 의미함



자산배분/해외크레딧
Analyst 이영주 leeyoungju@hanafn.com

2026년 9월 17일 | 기업분석_Update

BUY (유지)

목표주가(12M) 105,000원
현재주가(9.16) 54,800원

Key Data

KOSPI 지수 (pt)	6,717.97
52주 최고/최저(원)	87,300/45,650
시가총액(십억원)	9,640.6
시가총액비중(%)	0.17
발행주식수(천주)	175,922.8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1,210.5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65.6
외국인지분율(%)	6.72
주요주주 지분율(%)	
포스코홀딩스 외 2인	50.01
국민연금공단	7.05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35,129.0	35,968.1
영업이익(십억원)	1,465.2	1,548.0
순이익(십억원)	958.0	1,020.4
EPS(원)	5,212	5,565
BPS(원)	42,298	45,462

Stock Price**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32,261.0	32,373.6	34,675.2	35,391.2
영업이익	1,157.8	1,165.3	1,466.7	1,591.8
세전이익	761.7	835.1	1,252.8	1,403.9
순이익	514.6	614.1	953.8	1,053.9
EPS	2,925	3,491	5,422	5,991
증감율	(23.71)	19.35	55.31	10.49
PER	13.56	14.21	10.13	9.16
PBR	1.06	1.30	1.32	1.22
EV/EBITDA	7.72	9.05	7.72	7.14
ROE	8.14	9.27	13.63	13.90
BPS	37,359	38,290	41,578	44,943
DPS	1,550	1,850	2,710	3,000



Analyst 유재선 jaeseon.yoo@hanafn.com
RA 박시현 boxyhyun@hanafn.com

포스코인터내셔널 (047050)**북미 가스전 인수로 LNG 밸류체인 완성****즉각 실적에 기여 가능한 미국 셰일가스 자산 인수**

포스코인터내셔널은 Chord Energy 자회사가 보유한 비운영 셰일가스전을 인수한다. 미국 셰일가스 최대 생산지 중 하나인 Appalachia 지역의 Marcellus Core 분지에 위치한다. 현지 지주회사인 POSCO International E&P USA와 자산 보유 SPC를 통해 보유하는 구조다. 인수 금액은 5.5억달러 규모이며 인수를 위해 현지 지주회사에 5,329억원을 출자한다. 대여금 2,661억원은 모회사 지분 참여 여부에 따라 금전대여 형태로 인수하는 구조가 될 전망이다. 9월 14일 본계약 체결 후 11월 중순 거래 종결 목표로 진행 중이다. 1조원 규모 채무보증은 거래 종결 시 매매대금 납부 및 배관계약 인수 관련 모회사 보증 등이다. 미국 Henry Hub 가격이 연중 약세를 지속함에 따라 매력적인 가격으로 인수가 가능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보수적 관점에서 2028년 이후 영업이익 1,000억원 기대

인수 자산은 총 2,006개 가스정이며 생산정 1,305개, 개발정 701개로 구성된다. 매장량은 발견잠재자원량 220Bcf 포함 약 1.3Tcf 규모이며 100% 가스 자산이다. 2026년 상반기 기준 일산량은 124MMscf/d으로 미안마 가스전의 25% 수준이다. 미안마 가스전 지분율이 51% 이고 미국 가스전은 100%인 점을 감안하면 유의미한 규모로 해석된다. 생산 원가는 2달러 /mmbtu 미만으로 낮기 때문에 가스 가격 하락 구간에서도 원가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익성 확보가 가능할 전망이다. EBITDA 30% 가량 개발투자에 사용하여 생산량을 유지하는 가운데 나머지 잉여현금은 추가 자산 투자 또는 본사 배당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생산 중인 셰일가스 자산이기 때문에 즉각 실적 기여가 가능하다. 해당 자산의 2025년 연간 EBITDA는 0.8억달러, 2026년 상반기는 0.7억달러를 기록했다. 2028년 이후 연간 1,000억원 가량 영업이익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 가스 가격을 3달러/mmbtu 후반대로 가정한 전망이다.

도착지 제한이 없는 미국산 LNG의 밸류체인 시너지 효과

미안마, 호주에 이어 미국까지 업스트림 자산을 확보했다. 이번에 인수한 자산의 경우 LNG 형태로 수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트레이딩과 연계하여 활용도가 높은 자산이 될 전망이다. 일산 126MMscf의 연간 생산량은 LNG 환산 기준 약 100만톤 규모다. 50% 가량은 생산지 인근 수요처, 30%는 동북부 지역 및 오하이오주에 천연가스로 판매되며 20%는 테네시주를 거쳐 멕시코만 액화터미널로 공급된다. 향후 LNG 형태로 판매 가능한 가스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저렴한 가스를 국내로 도입하거나 지역별 가격 차이를 활용하는 트레이딩 사업 확대에 이어질 수 있다. 최근 JKM, TTF 대비 Henry Hub 가격의 스프레드가 향후에도 재현된다면 1카고(약 7만톤)당 1,000억원 가량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2026년 09월 17일 | 기업분석

Not Rated

현재주가(9.16)

21,750원

Key Data

KOSDAQ 지수 (pt)	815.98
52주 최고/최저(원)	25,450/15,760
시가총액(십억원)	348.6
시가총액비중(%)	0.08
발행주식수(천주)	16,028.0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67.7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1.5
외국인지분율(%)	27.34
주요주주 지분율(%)	
잇츠한불 외 3 인	42.34
FL LIMITED 외 5 인	9.40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N/A	N/A
영업이익(십억원)	N/A	N/A
순이익(십억원)	N/A	N/A
EPS(원)	N/A	N/A
BPS(원)	N/A	N/A

Stock Price**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2	2023	2024	2025
매출액	85	97	119	132
영업이익	21	25	25	29
세전이익	23	29	30	32
순이익	17	23	23	28
EPS	1,062	1,448	1,439	1,736
증감율	(6.1)	36.3	(0.6)	20.6
PER	9.3	9.1	8.2	10.6
PBR	1.1	1.3	1.1	1.5
EV/EBITDA	1.9	3.8	2.3	4.8
ROE	12.0	14.5	13.0	14.2
BPS	9,040	10,151	11,203	12,356
DPS	700	750	600	750



Analyst 박중대 forsword@hanafn.com
RA 양정석 jsyang@hanafn.com

네오팜 (092730)

더마 명가의 자부심, 제로이드

3분기 영업이익 90억원(YoY 33%) 추정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동기대비 25%, 33% 신장한 401억원과 90억원 수준으로 추정한다. 지난 2분기 최초로 400억원을 넘어선 이후 호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아토팜/제로이드/리얼베리어 중심으로 올리브영/온라인/수출 매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3분기 성장을 주도하는 브랜드는 제로이드이다. YoY 60%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올리브영 채널 침투율 확대 때문이다. 아토팜은 YoY 18%로 2분기 대비 성장률이 다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마존 프라임데이 높은 베이스 때문이다(올해는 2분기에 반영). 리얼베리어(YoY 23% 추정)는 올리브영/수출/온라인 채널 고른 성장을 이어가지만, 더마비(YoY -5% 추정)는 10월 리뉴얼을 앞두고 제반 행사를 축소하고 있어 일시적 부진이 예상된다. 국내외 광고마케팅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높은 매출 성장률로 영업이익률은 22.5%(YoY +1.5%p)까지 상승할 것으로 추산한다.

제로이드 올리브영 약진 주목

더마 카테고리에는 국내외 화장품 신장 메인 트렌드이다. 더구나 제로이드는 이미 병원 제품으로 확고하게 입지를 굳혀놓은 상황, 마케팅 효과가 탁월하고 유통업체 입점 조건도 양호하다. 성장 여력은 충분하다. 올리브영 더마 카테고리 안에서 여전히 7~8위 수준(2025년 말 기준)에 있다. 에스트라/바이오더마/라로슈포제/피지오겔 등 아직 갈 길이 멀다. 올리브영에서 인지도가 올라가면서 수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아토팜과 리얼베리어를 중심으로 수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도 전사 수출 매출 비중이 20%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 제로이드의 국내 시장 약진 때문이다.

대표 더마 브랜드 높은 성공 가능성, 12MF PER 10배 여유

당분간 아토팜/제로이드/리얼베리어 중심 YoY 20% 매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본다. 아토팜은 아마존 베이비케어 카테고리에서 1~2위를 할 만큼 인지도를 높이고 있고, 제로이드는 올리브영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 두 제품 모두 i) 국내에서 브랜드력이 확고하고, ii) 글로벌 화장품 시장 더마 트렌드에 부합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iii) 무엇보다 경영진의 성장 전략이 공격적으로 바뀌면서 K컬처, K뷰티 글로벌 확장세에 편승, 성장 가능성을 크게 열었다. 매출 증가로 인한 레버리지 효과로 영업이익률까지 상승하고 있다는 점은 높은 제품력을 대변한다. 현재 주가는 12MF PER 10배로 여유 있는 수준이다.

2026년 09월 17일 | 기업분석_스몰캡_Report

Not Rated

현재주가(9.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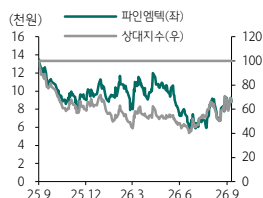
8,850원

Key Data

KOSDAQ 지수 (pt)	815.98
52주 최고/최저(원)	12,640/5,640
시가총액(십억원)	373.5
시가총액비중(%)	0.08
발행주식수(천주)	42,204.9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725.6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6.0
외국인지분율(%)	2.93
주요주주 지분율(%)	
홍성현 외 5인	26.11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420	629
영업이익(십억원)	26	51
순이익(십억원)	19	42
EPS(원)	389	892
BPS(원)	4,846	5,769

Stock Price**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2	2023	2024	2025
매출액	116	380	382	239
영업이익	5	20	(8)	2
세전이익	(7)	15	(19)	(17)
순이익	(7)	11	(17)	(15)
EPS	(710)	299	(466)	(393)
증감율	N/A	폭전	적전	적지
PER	(8.7)	30.1	(11.3)	(25.0)
PBR	1.8	2.2	1.4	2.2
EV/EBITDA	30.2	12.0	70.4	43.6
ROE	(6.7)	7.0	(12.3)	(7.6)
BPS	3,452	4,080	3,781	4,461
DPS	0	0	0	0



Analyst 권태우 tkwon@hanafn.com

RA 김진우 jinwookim1336@hanafn.com

파인애플 (441270)**아임 파인, 땡큐 폴더블: 국내 호조에 복미 가세****국내 공급 비중 회복, 실적으로 입증한 경쟁력**

2분기 매출액은 952억원(+24.4% YoY), 영업이익은 73억원(+38.6% YoY)을 기록했다. 지난해 국내 고객사의 공급처 다변화로 축소됐던 백플레이트 공급 비중이 회복되면서 외형과 수익성이 동반 개선됐다. 매출총이익률은 20.5%로 전분기 대비 6.1%p 상승했으며, 영업이익도 전분기 대비 흑자 전환했다. 3분기에는 국내 고객사의 폴더블 신모델 판매 호조에 힘입어 매출액 1,503억원(+161.2% YoY), 영업이익 191억원(+1,140.5% YoY)을 예상한다. 국내향 백플레이트 물량 증가와 안정적인 양산이 수익성 개선을 이끌며, 영업이익률은 12.7%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복미 물량 확보, 새로운 성장축 가동

하반기 추가 성장 동력은 복미 고객사향 백플레이트 공급이다. 외장인지 업체의 공급 지연으로 신규 제품 양산 일정이 늦춰졌으나, 최근 복미향 공급이 확대되면서 신규 고객사 진입 효과가 매출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검증된 공급사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경쟁사의 초기 품질 문제까지 겹치며, 동시에 초도 물량이 집중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복미향 매출은 하반기 1,3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하며, 대부분은 4분기에 반영될 전망이다. 국내향은 계절성을 감안해 4분기 매출을 3분기의 절반 수준으로 반영했다. 다만 회사 설명에 따르면 현재까지 주문 흐름은 예년보다 양호하다. 복미 신규 물량이 국내 고객사의 계절적 감소를 상쇄하며, 통상 비수기였던 4분기에도 전사 외형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판단한다.

올해 영업이익 403억원 예상, 수출 개선 시 추가 상향 여지

2026년 매출액은 4,678억원(+95.6% YoY), 영업이익은 403억원(+1,989.4% YoY)으로 추정한다. 4분기 매출액은 1,762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7.2% 증가하나, 영업이익은 161억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양산이 안정된 국내향 제품의 비중이 낮아지고 복미 신규 모델의 비중이 높아지는 만큼, 초기 양산 비용을 감안해 영업이익률을 9.1%로 보수적으로 반영했다. 향후 수익성은 신규 모델의 수출 안정화 속도가 관건이며, 기존 주력 제품 수준의 생산 효율을 확보할 경우 이익 추정치의 상향 여지가 있다. 2027년에는 복미향 공급이 연간으로 반영되면서 매출액 6,604억원(+41.2% YoY), 영업이익 638억원(+58.3% YoY)을 예상한다. 고객사 확대를 통한 외형 성장과 향후 양산 안정화에 따른 추가 수익성 개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6년 9월 17일 | 산업분석_Update

Overweight

Top Picks 및 관심종목

*CP 2026년 9월 16일

NAVER (035420)

BUY | TP 400,000원 | CP 201,500원



Analyst 이준호 junholee95@hanafn.com

디지털자산/인터넷

클래리티 법안 절차 투표 부결, 향후 전망

클래리티 법안, 바뀐 것은 방향이 아니라 속도

9월 16일(한국 시간) 미국 상원에서 클래리티 법안 심의 개시를 위한 절차 투표(Clature)가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부결됐다. 출석한 민주당 전원 반대, 공화당 4명 반대로 가결을 위해 필요한 60표까지 11표가 부족했다는 점은 부담이지만, 2025년 5월 지니어스 법안 역시 첫 절차 투표에서 48 대 49로 부결됐음에도 이후 재표결에서 통과됐음을 감안하면 완전히 법안이 무산됐다고 보기에는 이르다. 이번 클래리티 법안 절차 투표 역시 첫 부결 자체보다 재협상을 통해 60표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실제로 이번 표결에서도 공화당 Tillis의 반대표는 재심 동의를 위한 절차적 선택이었으며,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화 입법 자체보다는 대통령 이해 상충 규정과 은행 예금 유출 방지 등에 문제를 제기해왔다. 다만 지니어스 법안과 가장 큰 차이점은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상원은 10월 5일부터 중간선거를 위한 지역구 활동에 들어간다. 11월 3일 중간선거 이후 레임덕 회기까지 포함한다면 물리적으로 연내 처리가 가능하지만 협상에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2027년 상반기로 시점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자산 산업의 제도화는 계속된다. 이미 제정된 지니어스 법안은 2027년 1월 18일 내에 시행되며 SEC, CFTC 역시 기존 법률상 권한을 바탕으로 별도 규제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당초 연내 클래리티 법안이 처리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높지 않았기에 디지털자산 가격 및 관련 기업들의 주가 변동은 단기적인 이슈라 해석한다.

이미 선포해지고 있는 기준

클래리티 법안이 연초부터 지연되는 동안 미국의 디지털자산 제도화는 다양한 경로로 진행 중이다. SEC는 올해 디지털자산에 대한 증권법 적용 기준을 구체화하고 토큰 발행·자금조달, 수탁 규칙 등을 순차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CFTC 역시 디지털자산·토큰화 자산을 담보로 활용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RWA, 기존 금융 인프라의 블록체인 전환은 이미 클래리티 법안을 기다리지 않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Nasdaq은 기존 미국 주식시장 체계 안에서 토큰화 주식과 ETP 거래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으며 발행기업 중심의 NETs(Nasdaq Equity Tokens) 설계를 공개하고 Kraken의 모회사 Payward에 1억달러를 투자하며 24/7 거래를 지원하는 인프라 구축을 본격화했다. NYSE 역시 올해 증권을 토큰화된 형태로 거래할 수 있도록 규칙을 마련했다. 따라서 클래리티 법안 지연으로 가장 크게 남는 불확실성은 비증권 디지털자산 현물시장에 대한 포괄적인 감독체계와 SEC-CFTC 간 법률상 관할 경계다. 신규 토큰 상장과 DeFi 등 규제 민감도가 높은 사업의 확장 시점도 일부 늦어질 수 있다. 반면 파생상품, 토큰화 증권, RWA 담보 활용 등 기존 법률과 규제기관의 권한을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은 이미 제도화가 진행 중이다. 전통 금융과 퍼블릭 블록체인의 결합, RWA와 스테이블코인의 활용이라는 큰 방향은 오히려 더욱 선포해지고 있다. 2026년 4분기 이후에도 디지털자산과 블록체인이 금융 인프라로 편입되는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2026년 9월 17일 | 산업분석

Overweight

Top Picks 및 관심종목

*CP 2026년 9월 16일

대한항공(003490)

BUY | TP 41,000원 | CP 29,100원

진에어(272450)

BUY | TP 7,000원 | CP 5,840원

팬오션(028670)

BUY | TP 9,000원 | CP 5,800원

HMM(011200)

Neutral | TP 21,000원 | CP 20,400원

운송

환율과 운송

항공: 이견 없이 좋다

최근 2달간 달러-원 환율이 급락했는데 항공사에게는 긍정적인 이벤트이다. 특히 LCC는 환율 영향이 크다. LCC의 매출 중 대부분이 원화로 발생하는 반면 비용의 60%가 외화에 연동되어 있기 때문이다. 유류비/공항관련비/정비비 등이 달러화로 결제되고, 감가상각비도 환율 영향이 있다. 최근 항공유가가 \$160/배럴 이상으로 2분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승했는데, 그나마 원화 절상이 다행이다. 높은 환율로 아웃바운드 수요가 약화된 점도 우려였는데 8월부터는 여행 수요가 진작되고 있는 모습이다. 대한항공의 경우 영업이익 단에서는 환율 영향이 크지 않다. 여객 매출 중 절반이 인바운드 여행객이고, 화물 매출은 외화 연동성이 높기 때문이다. 영업 외로는 외화부채 평가손익 때문에 원화 절상 시 외화환산 이익이 계상되는 구조(10원당 560억원 변동)이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2분기 말 환율 대비 3분기 말 환율이 150원 이상 낮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외화환산이익 규모가 클 예정이다.

해운: 환율 말고 역대급 운임을 봐주세요

해운사의 매출과 비용은 모두 달러로 발생한다. 원화 절상 시 매출액/영업이익이 모두 작아 보이는 결과를 낳는다. 다만 BDI와 SCFI를 비롯한 해운 운임 전반이 전쟁 이후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려보다는 기회의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SCFI는 3,600pt 이상까지 상승하며 희망봉 우회를 시작하던 시기의 레벨까지 올라왔고, 머스크는 2026년 영업이익 추정치를 두배 이상 상향했다. 미주 노선 위주의 운임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 3분기 성수기 효과가 나타나는 중이다. BDI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전히 중국의 철광석 수입 관련 톤마일 증가 효과가 이어지고 있고, 케이프사이즈 위주의 고운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환율 관련 우려를 시황이 덮을 수 있는 구조라고 판단한다.

시장이 혼란스러울 때는 방어적으로 선택할 필요

매크로가 변할 때는 방어적인 종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운송산업 내에서는 대한항공과 팬오션을 Top Pick으로 유지한다. 항공사 중에서는 유가를 가장 빠르게 전가할 수 있는 항공화물을 주요 사업부로 보유한 대한항공이 안심된다. 팬오션도 2026년까지는 BDI가 좋고, 2027년부터는 BDI가 하향안정화 된다고 가정해도 VLCC 10척이 인도되면서 안정적인 실적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한다.



Analyst 안도현 dohyunahn@hanafn.com

단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증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HD현대중공업 (329180.KS)	9/14	479,000	440,500	-8.04%	- 고선가 선박의 매출 인식 확대와 생산성 개선에 힘입어 조선·엔진 부문 수익성 상승 - 상선 중심의 기존 사업에 더해 함정·방산, 발전엔진·원전 등으로 사업 영역 확대
삼성SDI (006400.KS)	9/14	545,000	544,000	-0.18%	- 북미 ESS 라인 본격 가동과 소형전지 가동을 상습으로 하반기 흑자 기조 지속 기대 2Q26 7개 분기 만의 흑자 전환에 이어 2027년 영업이익 1.48조원 전망
SK이노베이션 (096770.KS)	9/14	144,800	136,300	-5.87%	- 정제마진 회복과 윤활유 사업의 견조한 수익성을 바탕으로 에너지 부문의 실적 기대 - SK온의 유럽 판매 회복과 북미 ESS 배터리 공급 확대가 중장기 성장동력으로 부각
한화생명 (088350.KS)	9/14	5,990	5,840	-2.50%	- 중장기급 종신보험 중심의 상품 포트폴리오 전환으로 신계약 수익성 크게 개선 -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개선에 따른 주주환원 불확실성 완화 기대
오리온 (271560.KS)	9/14	119,300	111,400	-6.62%	- 중국·베트남·러시아 매출 큰 폭으로 성장하며 해외 법인 중심의 실적 개선세 뚜렷 - 중국에서 고성장 중인 간식 및 온라인 채널에서의 보폭 확대 고무적
DL이앤씨 (375500.KS)	9/14	85,800	87,200	1.63%	- 주택 부문의 높은 마진과 원가율 개선을 바탕으로 양호한 수익성 지속 기대 - 하반기 데이터센터 약 2조원·플랜트 약 2.5조원의 수주 파이프라인 기대
대한해운 (005880.KS)	9/14	2,090	2,040	-2.39%	- 포스코·한국가스공사 등과의 장기운송계약 비중이 높아 안정적인 실적과 현금흐름 기대 - 재무구조 개선과 3,500억원의 현금성 자산을 기반으로 추가 장기계약 수주 여력 충분
피에스케이홀딩스 (031980.KQ)	9/14	157,000	166,800	6.24%	2026년 글로벌 OSAT 업체(Amkor, ASE, SPIL 등)의 리플로우 장비 발주 모멘텀 지속 - HBM-CoWoS 후공정 핵심 장비 Reflow-Descum 수혜 전망
RFHIC (218410.KQ)	9/14	48,800	52,700	7.99%	- 방산 매출 확대와 RF머트리얼즈 실적 호조로 이익 성장세 지속 - 미국 Upper C-band 주파수 경매와 국내 5G SA-6G 투자 재개가 중장기 성장 모멘텀
인텔리안테크 (189300.KQ)	9/14	63,400	65,700	3.63%	- 저궤도 위성 안테나-게이트웨이 중심으로 사업 구조 전환 가속화 - 북미 공장 가동과 글로벌 Top-Tier 고객사향 게이트웨이 공급 확대가 추가 성장동력

단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주간(This Week)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0.60%	+2.14%p	+75.66%	+15.65%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주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5%선 적용

증장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증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CS건설 (006360.KS)	9/14	38,500	36,700	-4.68%	• 건축·주택 원가를 정상화와 비용 선반영 효과로 본격적인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 • 하반기 데이터센터 수주 가능성이 실적 추정치와 밸류에이션을 높일 핵심 모멘텀
피에스케이홀딩스 (031980.KQ)	9/14	157,000	166,800	6.24%	• 2026년 글로벌 OSAT 업체(Amkor, ASE, SPIL 등)의 리플로우 장비 발주 모멘텀 지속 • HBM-CoWoS 후공정 핵심 장비 Reflow-Descum 수혜 전망
SK하이닉스 (000660.KS)	9/7	1,647,000	1,759,000	6.80%	• 2025~2027년 누적 FCF의 50% 이상을 주주에게 환원할 계획 • 자기주식 취득만 40조원이면 긍정적. 추가 주주 환원도 대기
S-Oil (010950.KS)	8/31	149,200	144,100	-3.42%	• 베네수엘라의 OPEC 탈퇴 및 미국과의 에너지 협력 강화 가능성 대두 • OPEC의 균열, 중동의 가격 결정력 약화 및 아시아 정유업체의 원가 경쟁력 강화 요인
코스맥스 (192820.KS)	8/24	271,000	280,500	3.51%	• 국내 고성장과 미국 법인 흑자전환, 동남아 턴어라운드가 동시에 진행 • K-뷰티 수출 호조와 글로벌 ODM 1위 경쟁력이 본격 반영되는 가운데 12MF PER 11배 수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012450.KS)	8/10	1,097,000	1,055,000	-3.83%	• K9 자주포·천무 중심의 유럽·중동 수출 확대로 지상방산 수주잔고 약 39.7조원까지 증가 •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 성장과 수주 기대감 재차 확대될 전망
삼성SDI (006400.KS)	8/10	459,000	544,000	18.52%	• 북미 ESS 라인 본격 가동과 소형전지 가동을 상순으로 하반기 흑자 기조 지속 기대 • 2Q26 7개 분기 만의 흑자 전환에 이어 2027년 영업이익 1.48조원 전망
팬오션 (028670.KS)	8/10	6,040	5,800	-3.97%	• BDI 강세와 탱커 운임 상승으로 벌크·탱커 부문 이익이 확대되며 호실적 기대 • SK해운 인수 VLCC의 실적 기여와 증장기 운임 강세가 추가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
삼성전기 (009150.KS)	8/3	1,142,000	1,381,000	20.93%	• AI 서버용 고용량 MLCC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공급사들의 증설은 제한적 • AI 가속기용 FCBGA의 대형화·고다층화로 구조적 공급 부족 장기화 전망
풍산 (103140.KS)	8/3	71,200	76,800	7.87%	• 전기동 가격 강세에 따른 메탈 이익과 해외 신동 자회사 수익성 개선 기대 • 2분기 이연된 방산 매출의 3분기 인식으로 실적 반등 예상
KB금융 (105560.KS)	7/13	184,400	176,700	-4.18%	• 2분기 추정 순익 1.97조원으로 2조원에 육박해 지주사 설립 이후 분기 최대 순익 예상 • 홍콩 ELS 과징금 이슈 해소로 주주환원 확대 및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
삼양식품 (003230.KS)	7/1	1,119,000	1,261,000	12.69%	• 미주·중국·유럽 중심의 해외 매출 고성장과 밀양2공장 가동을 상순으로 실적 성장 기대 • 중국 신공장 가동 및 추가 생산시설 검토로 해외 비중 확대와 단기 실적 모멘텀 부각

증장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분기(3Q)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17.40%	+0.28%p	+39.82%	-20.23%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분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기(Loss cut)는 종가기준 -15%선 적용

ETF 투자유망종목

해외주식분석실



국내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KODEX 미국시테크 TOP10 (485540)	2026.07.16	16,205	14,910	-8.0%	- 미국에 상장된 대형 기술주 중 AI 관련 키워드 유사성이 높은 10개 종목을 선별하여 유동시가총액과 LLM 스코어링을 합산하여 편입 비중을 산정. 1위~3위 기업은 각각 20% 비중으로 편입해 집중도를 높인 구조 - 현재 핵심 편입 종목은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이며, AI 산업 트렌드 변화에 맞춰 새롭게 부상하는 AI 기업들을 포트폴리오에 반영할 수 있는 구조
KODEX AI반도체 TOP2플러스 (395160)	2026.02.27	29,560	38,915	31.6%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 양산 본격화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및 한미반도체 등 국내 AI 반도체 밸류체인 핵심 기업에 집중 투자 - 온디바이스 AI 확산과 AI 서버 수요 폭증으로 인한 메모리 수급 불균형 속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실적 개선 및 가치 재평가 기대
TIGER 글로벌 사이버보안 (418670)	2026.07.16	18,430	18,700	1.5%	- 글로벌 기업 중 사이버보안 연관 산업에서 매출이 50% 이상 발생하는 기업을 시가 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하는 패시브 ETF - AI 확산 과정에서 사이버보안에 대한 인식이 시로 인한 시장 잠식 우려 대상에서 AI 도입 시 필수 인프라로 전환됨에 따라 AI 보안 기업들의 가치 재평가 기대
KODEX 미국 AI전력핵심인프라 (487230)	2026.07.16	23,200	18,735	-19.2%	- AI 성장 과정 속에서 전력 인프라는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핵심 분야로 관련 기업들은 공급자 우위 구조 속에서 수익성이 개선되는 흐름 - 주요 빅테크의 파트너로 선정되고 있는 미국 전력 생산·송배전·데이터센터 핵심 10개 종목에 집중 투자
RISE AI전력인프라 (0101N0)	2026.08.28	20,520	20,165	-1.7%	- 국내 AI 전력 생태계에 포괄적으로 투자하는 ETF로 발전 설비뿐 아니라 송배전, 데이터센터 후공정까지 전력 밸류체인 전반을 커버 - 하이퍼스케일러의 인프라 투자 확대와 북미 지역의 노후 전력망 교체로 전방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전력망 보호를 위한 행정명령은 국내 전력기기 업체에 수혜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HANARO 글로벌 금채굴기업 (473640)	2026.08.28	36,855	33,705	-8.5%	- 글로벌 우량 금 채굴 기업에 투자하는 ETF. 금 현물 투자와 달리 편입 기업들의 배당 지급을 통해 추가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 - 미국 정부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실물 자산인 금의 가치를 지지하는 요인으로, 금 가격 상승 국면에서 레버리지 효과가 기대되는 금 채굴 기업들의 투자 매력도 부각될 전망
TIME 글로벌우주테크 &방산액티브 (478150)	2026.07.16	21,300	18,155	-14.8%	- 우주 산업의 성장과 방산기업들의 안정적인 실적 모멘텀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액티브 ETF로 시장 상황에 맞게 편입 종목과 비중을 유연하게 조정 - SpaceX 상장 이후 본격화되는 우주 산업 투자 사이클과 글로벌 주요국들의 국방비 증액 추세에 따른 구조적 수혜를 누릴 것으로 기대
ACE 고배당주Plus 커버드콜액티브 (0199C0)	2026.07.16	9,980	9,245	-7.4%	- 고배당주 80%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각각 10% 비중으로 편입하여 고배당주 포트폴리오로 시장의 흐름을 추종할 수 있는 커버드콜 액티브 ETF - 포트폴리오의 30% 비중까지 콜옵션을 매도하는 구조로 월 분배금 재원을 마련하고 비과세 배당 종목을 편입하여 배당과 절세를 함께 추구. 향후 국내 데일리 옵션(ODTE) 도입 시 추가적인 배당 재원 확보 가능. 액티브 운용방식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커버드콜 비중 조절

주1) 기준가는 편입일 기준 최신 마감 종가(한·중·일 ETF: 편입 당일 종가, 미국 ETF: 편입 전영업일 현지 종가) 기준

주2) 전일종가는 작성일 기준 최신 마감 종가(한·중·일 ETF: 작성 당일 종가, 미국 ETF: 작성 전영업일 현지 종가) 기준

주3) 국내 ETF의 기준가 및 종가 통화: 원(KRW)

Global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SPHQ (미국 대형 퀄리티 주식)	2026.03.23	75.24	83.38	10.8%	- 수익성(ROE), 이익의 질(미결제영업자산 변동), 재무 건전성(레버리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S&P500 내 최상위 우량주 100개를 선별해 투자 - 매크로 불확실성 및 실적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 탄탄한 펀더멘털을 보유한 기업에 집중해 지수 대비 견고한 하방 경직성과 장기적인 초과 수익 추구
KBWB (미국 은행)	2026.07.16	98.44	94.70	-3.8%	- IPO와 M&A 시장 회복, AI 인프라 자금조달 확대에 따른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미국 대형은행들에 집중 투자하는 ETF - 미국 금융 섹터는 트럼프 행정부의 금융 규제 완화 기조 속 주주환원 기대감이 높아 지는 가운데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실적 성장 국면이 전개될 전망
CHAT (생성형 AI 및 기술)	2026.07.16	88.42	85.10	-3.8%	- 생성형 AI 관련 기술을 통해 매출을 창출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에 집중 투자하는 ETF로 AI 밸류체인의 실질적인 성장 모멘텀을 누릴 것으로 기대 - 액티브 운용 방식으로 유연한 포트폴리오 조정이 가능하며 OpenAI와 앤트로픽 지분을 보유한 소프트뱅크그룹과 SK텔레콤을 편입해 비상장 AI 파운데이션 모델 기업에 대한 간접 노출까지 확보한 차별화된 구성이 특징
CIBR (사이버 보안)	2026.07.16	93.09	101.00	8.5%	- 사이버보안 기업으로 분류되는 글로벌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하는 대표적인 사이버보안 테마 ETF - 상위 5개 종목 합산 비중을 40%로 제한하여 대형주에 집중된 구조이면서도 그 외 네트워크 인프라, 사이버 방산 관련 기업까지 함께 편입해 사이버보안 밸류체인 전반에 노출 가능
SMH (글로벌 반도체)	2025.11.24	326.13	542.11	66.2%	- 대형주 비중이 높은 대표 글로벌 반도체 ETF. 매출의 50%가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생산 분야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 - 엔비디아의 실적과 가이드언스를 통해 AI 산업의 꾸준한 성장 모멘텀 확인. SMH는 NVIDIA와 TSMC가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 Capex 경쟁 지속 가운데 소비인 AI 시장 확장, 신제품 교체 기반의 견고한 수요 기대 유효
PAVE (미국 인프라)	2026.08.24	56.39	52.84	-6.3%	- 미국 인프라 산업 관련 기업들로 구성된 인프라 테마 ETF. 산업재를 중심으로 소재, 건설장비, 운송, 엔지니어링 기업들을 편입하여 구성 - 금융시장 환경 변화 가운데 향후 정책 모멘텀 반영 가능성. 정치적 관점에서도 리쇼어링은 양당 모두 선호하는 방향성. 품목별 관세의 연속성 고려시 협상 과정에서 미국 내 인프라 수요 꾸준히 증가 전망
GRID (전력망 및 스마트그리드)	2026.07.16	182.63	172.77	-5.4%	- 스마트그리드 및 전력 인프라 관련 매출 비중이 높은 글로벌 전력기기 기업들을 포괄적으로 편입하는 전력 인프라 테마 ETF - 미국의 노후화된 전력망 교체 사이클과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급증이 맞물리며 전력 인프라 기업들의 중장기적인 실적 성장 모멘텀 지속될 것으로 기대
XBI (바이오테크)	2026.07.16	156.22	154.03	-1.4%	- 미국 바이오테크 종목 약 150개를 동일가중 방식으로 편입하는 분산형 ETF로 중소형 종목들의 임상 및 M&A 이벤트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구조 - 글로벌 빅파마들이 특허 만료를 앞두고 파이프라인 확보를 위해 M&A를 비롯한 투자에 적극 나서면서 바이오 업종 전반의 투자 심리 개선 기대

주1) 기준가는 편입일 기준 최신 마감 종가(한·중일 ETF: 편입 당일 종가, 미국 ETF: 편입 전영업일 현지 종가) 기준

주2) 전일종가는 작성일 기준 최신 마감 종가(한·중일 ETF: 작성 당일 종가, 미국 ETF: 작성 전영업일 현지 종가) 기준

주3) Global ETF의 기준가 및 종가 통화: 달러(USD)

Calendar

글로벌투자분석실

SUN	MON	TUE	WED	THU	FRI	SAT
9.13	9.14	9.15	9.16	9.17	9.18	9.19
	일본 7월 설비가동률 (0.5%, 이전치 4.1%) 일본 7월 광공업생산 (3.9%, 이전치 4.1%)	한국 8월 수출물가지수 (42.4%, 이전치 49.1%) 한국 8월 수입물가지수 (15.6%, 이전치 18.7%) 중국 8월 소매판매 (0.4%, 이전치 0.6%) 중국 8월 광공업생산 (5.2%, 이전치 4.5%) 유로존 9월 Zew 서베이 (34.7, 이전치 31.4)	일본 7월 핵심기계수주 (-3.7%, 이전치 9.7%) 미국 8월 소매판매 (E 0.8%, 이전치 -0.6%) 미국 9월 NAHB 주택시장지수 (E --, 이전치 35)	미국 9월 기준 금리 (E 3.75%, 이전치 3.75%) 유로존 8월 CPI (E 3.3%, 이전치 3.3%) 영국 9월 기준 금리 (E 3.75%, 이전치 3.75%) 미국 8월 주택착공건수 (E 6.9%, 이전치 -12.4%) 미국 8월 미결주택매매 (E 0.0%, 이전치 -2.3%)	한국 8월 PPI (E --, 이전치 7.7%) 일본 9월 기준 금리 (E 1.25%, 이전치 1.0%) 일본 8월 CPI (E 2.0%, 이전치 1.9%) 미국 8월 광공업생산 (E 0.3%, 이전치 0.2%) 미국 8월 선행지수 (E 0.2%, 이전치 0.2%)	
9.20	9.21	9.22	9.23	9.24	9.25	9.26
	중국 9월 기준금리 (E 3.0%, 이전치 3.0%)	유로존 9월 소비자가대지수 (E --, 이전치 -15.5)	한국 9월 소비자심리지수 (E --, 이전치) 유로존 9월 제조업 PMI (E --, 이전치) 유로존 9월 서비스업 PMI (E --, 이전치)	일본 9월 제조업 PMI (E --, 이전치) 일본 9월 서비스업 PMI (E --, 이전치) 미국 8월 신규주택매매 (E --, 이전치 --)	미국 8월 내구재 주문 (E --, 이전치 --) 미국 9월 미시건대 소비자심리지수 (E --, 이전치 --)	

주: 1) 괄호 안은 예상치(E), 전월 순, 한국시간 기준 (*E)는 당사 추정치. 2) 유로권, 북미는 전월대비(PCE 디플레이터는 전년동월대비), 아시아, 신흥국은 전년동월대비 기준, 3) P(속보치), A(잠정치), F(확정치)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